

#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12-2016

**연구책임 : 최막중 (환경대학원 원장)**  
**공동연구 :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장수은 (환경대학원 교수)**  
**이유미 (환경대학원 교수)**

89

## 1. 계획의 개요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 정비하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계획으로 2012-201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소유부지와 인근 사유지 중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다. 특히 개발포화 상태인 캠퍼스 현황에 주목하여, 건축물·시설물의 단기적인 추가 개발보다 중장기적인 캠퍼스 관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제 도출 (agenda-setting)에 초점을 두었다.

## 2. 계획의 특징

본 계획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캠퍼스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였다. 서울대학교는 매일 5만여 명이 활동하는 하나의 '도시'이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획은 보행로, 광장, 녹지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또한 차량에 의해 잠식된 캠퍼스의 환경개선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본 계획은 옥외공간 활성화화를 위한 오픈스페이스계획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계획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캠퍼스의 개념을 관악 및 연건캠퍼스 등 기존 캠퍼스의 울타리 안에서만 보지 않고 외부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융합을 표방하였다는 점이다. 즉, 캠퍼스 내 가용토지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캠퍼스 외부의 지역사회로 대학기능을 확대해 나가거나 캠퍼스 내부공간을 지역사회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계획을 추구하였다. 또한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 양여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멀티캠퍼스(Multi-campus)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3. 계획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법인화 이후 설립된 '캠퍼스위원회'의 심의 준거로서, 향후 캠퍼스 관리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캠퍼스내 토지·시설물의 소유 및 운영주체는 서울대학교(법인)임을 인식하고, 단과대학(원)별 토지·시설의 개별적 활용·개발을 지양하여 서울대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관악 및 연건캠퍼스가 지난 40여 년간의 난개발로 인해 더 이상의 신규개발이 불가능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투리 토지의 소규모 건물신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개선활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장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형개발은 멀티캠퍼스 차원에서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대중교통 및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및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보행자 광장, 소공원 등 다양한 옥외 공공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 4. 관악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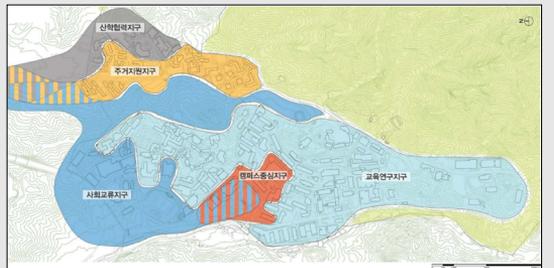
#### 1) 토지이용 및 건축물계획

캠퍼스의 보존과 개발에 관한 토지이용은 보존지역(생태보존형, 녹지관리형), 개발지역, 전략관리지역(교내정비형, 지역사회확장형)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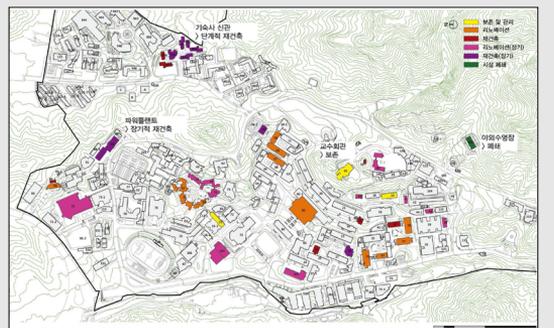
또한 기능별로는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캠퍼스 확장의 필요성, 신림선 경전철의 교내 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교류지구를 정문 앞 및 낙성대 지역까지 확장·지정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국수봉 일대에 오픈캠퍼스 개념을 적용하였다(그림 2).



<그림 1> 토지의 활용 및 보존계획



<그림 2> 토지이용계획



<그림 3> 건축물 관리 및 개발계획

건축물 계획에서는 3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상태, 개발수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치를 보존·유지관리, 리노베이션, 재건축, 시설 폐쇄로 구분하였다(그림 3).

관악캠퍼스의 경우 기존 동번호의 연속성 결여로 인해 개별 건축물 위치를 확인함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새로운 건축물 동번호 체계를 예시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안은 먼저 캠퍼스를 11개 영역(알파



<그림 4> 건축물 동번호 체계(예시)

벳 대문자 A~K)으로 구분하고, 영역 내에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과제가 검토 및 계획될 필요가 있다(그림 4).

**2) 오픈스페이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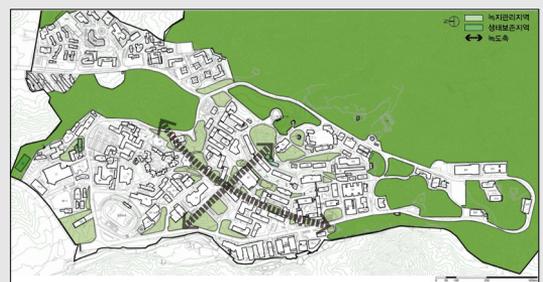
관악캠퍼스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녹지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오픈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본 계획에서는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주요 과제로 부각하여 옥외공간의 현황 진단과 이슈 도출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외부공간의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지형적인 단차로 인해 보행로가 단절된 경우도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중앙 오픈스페이스도 없다. 이에 각 생활거점과 연계된 영역별 오픈스페이스와 캠퍼스의 상징적 중앙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본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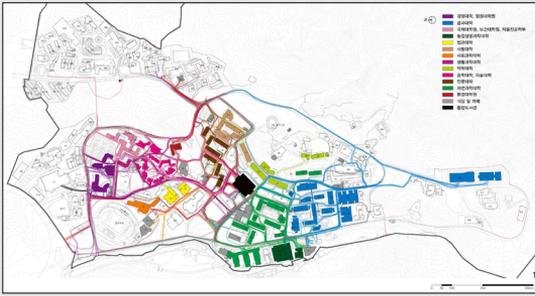
관악캠퍼스는 캠퍼스 전체를 연결하는 체계적인 보행 네트워크가 부재하다. 캠퍼스를 가로지르

는 중심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주요 보행 결절점에 이정표가 없어 방향성이 취약하다. 또한 지형적 단차와 계단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현황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학내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보행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각 단과대학(원)별로 인근지역에서 보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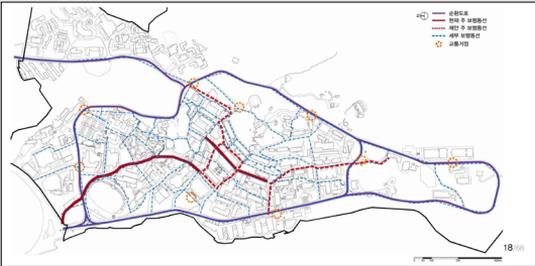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캠퍼스 전체 보행 네트워크 및 세부보행동선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걷고싶은길과 순환도로나가 만나는 보행 결절점에는 작은 규모의 광장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정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7, 8). 또한 보행지도 제작(예시)을 통해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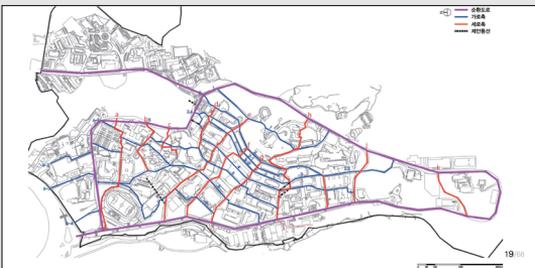
<그림 5> 녹지 보존 및 녹지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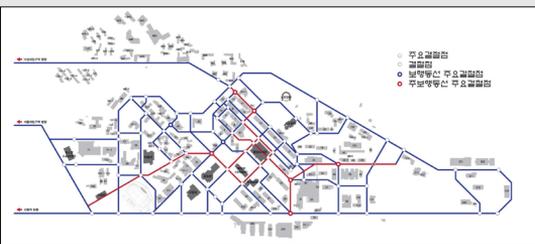
<그림 6> 보행동선 조사



<그림 7> 주보행동선 연장계획



<그림 8> 세부보행동선 관리체계 구축(보행그리드)



<그림 9> 보행지도(예시)

### 3) 교통계획

국내 최대 캠퍼스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악캠퍼스는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건축물 위치별 지형의 단차가 크다. 또한 외부의 대중교통 결절점과도 이격되어 있어 교내로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교내에서도 심한 지형적 단차로 인해 각 시설로의 보행자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입지특성이 자동차 중심의 캠퍼스 교통체계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악캠퍼스의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교직원들의 개인교통 이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생의 경우는 대중교통이용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교통의 경우, 관악캠퍼스로 하루 1만5천여 대의 차량 진출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총 주차면 수는 4천5백여 면이나 정기권 등록대수는 그 두 배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통계획은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교통수단별로 보면, 2000년 이후로 인상된 적이 없는 주차요금의 인상을 통해 개인교통 이용을 억제하고, 통행일수에 비례해 정기권 요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보조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합리적 개인교통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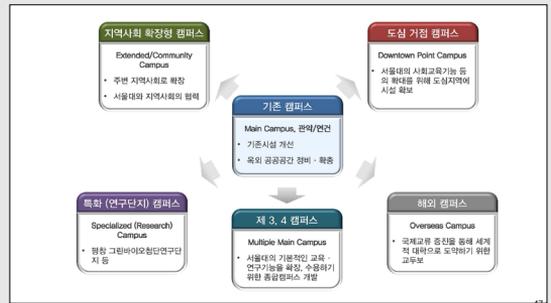
또한 대중교통의 경우 셔틀버스 확대 및 노선 조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림선 경전철 역사를 캠퍼스내 본관 앞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서부권에서 들어오는 학내구성원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자 하였다.

한편 캠퍼스 내 깊숙한 곳까지 차량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보행환경의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차량진입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세

부 위치로는 약대 앞길, 음미대 내부도로, 제3식당 앞, 사범대 지역을 들 수 있다.

특히 차량동선 계획과 주차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다한 주차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토지의 입체적·복합적 활용을 통한 지하 거점 주차장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문과 후문 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정문 앞 관악IC 건설 후, 교내로의 진입 및 통과교통에 의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을 위하여 기존 정문 외의 출입구 추가 계획을 우발계획(contingency plan) 수준에서 제안하였다.



<그림 12> 멀티캠퍼스의 개념

## 5. 멀티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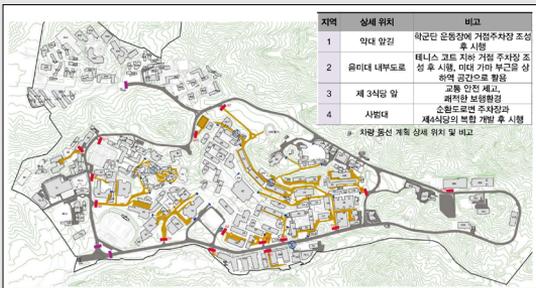
### 1) 개요

본 계획에서는 멀티캠퍼스 개념을 도입하여 관악, 연건의 기존 캠퍼스 개념 외에도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도심 거점 캠퍼스, 특화(연구단지) 캠퍼스, 제3,4캠퍼스, 그리고 해외 캠퍼스 등으로 캠퍼스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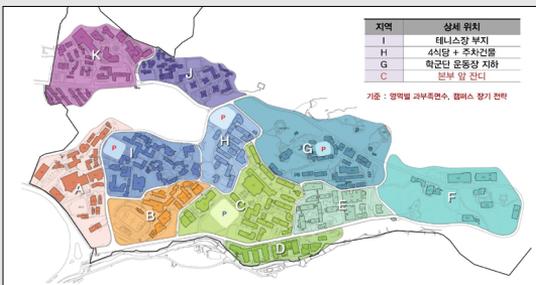
### 2) 연건캠퍼스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건캠퍼스는 현재 학교시설과 병원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캠퍼스 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캠퍼스 내부(경모공지, 대한의원)와 인근에 문화재 입지로 인해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적 개발잠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대학과 병원의 소유주체 분리로 인해 통합적 관리 및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관악캠퍼스 인근의 학교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연건캠퍼스의 기초 교육기능 일부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모색하고, 연건캠퍼스는 임상교육 및 연구기능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관악캠퍼스에서는 기초의학을 포함한 통합적 교육을 통한 융·복합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연건캠퍼스는 공간활용의 여유를



<그림 10> 차량동선 진입 제한 계획



<그림 11> 지하 거점 주차장 건설(3+1)(안)

확보할 수 있다.

### 3) 수원캠퍼스, 연구단지, 양여재산

수원캠퍼스는 농생대의 관악 이전 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를 매각하여 상당부분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와 학교소유 토지의 경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잔존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상태이다.

평창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2013)을 수립하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Green Bio Cluster)라는 개념하에 5대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외에도 본 계획은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 양여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4) 지역사회와 관악캠퍼스

관악캠퍼스는 캠퍼스 구성원 수 증가와 함께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캠퍼스 개발이 장기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캠퍼스 난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발수요는 캠퍼스내로 집중되어 있어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계획에서는 캠퍼스 외부로의 확장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서울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정문 앞 및 낙성대 인근 부지 등을 활용한 관악캠퍼스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부지내 경사가 심한 곳과 비오톱 1등급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적인 활용방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허용되는 옥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국수봉 인근 학교부지를 공원으로 대체 지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 미소유 부지라 하더라도 낙성대역 주변이나 녹두 지역에 점적으로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낙성대역 주변 지역과 연계된 계획을 서울대학교가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출이 가능해 진다면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이익이 되는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건물을 확보함으로써 교육 및 기숙사시설의 확충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는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제언

향후 전문성 있는 캠퍼스 계획 전담조직의 설치를 통해 캠퍼스 마스터플랜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립·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담조직을 총괄하는 Campus Mater Planner 또는 Architecture를 장기계약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건축물계획 뿐 아니라 오픈스페이스계획, 교통계획을 다루었으나, 앞으로는 환경·에너지계획까지 통합하여 캠퍼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캠퍼스 환경조성,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외부공간 안내표시체계뿐 아니라 건물내 안내표시체계를 정비하여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 및 약자를 배려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